



2013 트라이볼 기획공연
New Year's Concert IN TriBowl

신년 음악회

癸巳年

공연개요

일 시 2013년 2월 16일 (토) 오후 5시 - 6시 30
프로그램 판소리 흥보가 中 〈박타령〉, 가야금양상불 〈오나라〉, 거문고양상불 〈장일타흥 연가〉, 〈달마중〉,
 〈신년맞이 판굿〉, 〈남도아리랑〉, 〈Frontier〉, 〈세계민요기행〉, 〈신모듬〉
출 연 진 인천국악관현악단 (지휘:유병진), 전통예술공연단 타투
장 소 송도 트라이볼

관람안내

입 장 료 무 료
관람신청 인천아트플랫폼 홈페이지 사전접수 (선착순) www.inartplatform.kr
문 의 032) 760-1014
오시는길 인천지하철 센트럴파크역 4번출구

■ 공연 개요

- 행 사 명 : 2013 트라이볼 신년음악회
- 일 시 : 2013년 2월 16일 (토) 오후 5시-6시30분
- 장 소 : 송도 트라이볼
- 출 연 진 : 인천국악관현악단 (지휘:유병진), 전통예술공연단 타투

■ 공연 내용 및 일정

○ 프로그램 순서

순서	곡 명	출연진
1	판소리 “홍보가 중 박타령”	정상희
2	가야금양상블 “오나라”	가야금양상블 담은
3	거문고양상블 “장일타홍 연가”, “달마중”	거문고양상블 다비
4	신년맞이 판굿	전통예술공연단 타투
5	“Frontier”	인천국악관현악단
6	“남도아리랑”	
7	국악으로 듣는 “세계민요기행”	민영옥, 전영랑, 김유리
8	사물놀이와 함께하는 “신모듬”	인천국악관현악단, 전통예술공연단 타투

○ 공연곡 해설

공연곡	해 설
홍보가 중 박타령	판소리 다섯 마당의 하나인 흥부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이다. 흥부가 아내와 함께 박을 타면서 흥겹게 부르는 대목으로, 톱질하는 모습과 아내와 자녀를 위하는 마음, 형님을 생각하는 마음 등을 나타내고 있다. 진양조로 시작하여 자진모리까지 변해가는 장단의 변화가 흥미롭고 사실적인 묘사와 함께 의성어와 의태어를 풍부하게 사용하여 듣는 것만으로도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안겨준다.
오나라	드라마 대장금의ost ‘오나라’를 ‘담은(湛殷)’에 맞게 실내악으로 편곡하였다. ‘서로 어우러져 소리를 즐긴다’라는 뜻의 가야금 양상블 ‘담은’은 우리 전통음악을 쉽고 친근하게 풀어 관객들과 함께 즐기면서 소통한다. 이곡은 중간에 노래를 곁들이기도 하지만, 이번 연주는 맑고 아름다운 가야금소리와 애절한 해금의 선율로 하나의 주제를 여러 이야기로 풀어본다. (편작 안승철)
장일타홍 연가	1930년대 인천출신의 여가수 ‘장일타홍’이 유성기 음반에 남긴 노래 ‘옛 님을 그리면서’와 ‘아리랑의 꿈’을 재조명한 곡이다. 이 두 곡은 모두 경기민요 풍의 신민요로, 여러 경기 민요의 선율들이 섞여있어 경기민요를 표방하고 있는 느낌을 주지만, 국악기의 반주는 없고 모두 양악기 반주로 연주되며, 창법 또한 경기민요와 다르다. 이 곡들을 거문고 양상블 다비의 거문고와 피아노, 퍼커션의 연주로 새롭게 편곡해 보았다. 장일타홍을 비롯한 잊혀진 예인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되었으면 한다. (편작 박경훈)
달마중	윤석중 작사, 홍난파 작곡의 잘 알려진 동요 ‘달마중’을 다비의 색깔에 맞게 편곡하였다. 피아노의 반주에 맞추어 시작한 곡은 경쾌한 느낌의 거문고 연주로 이어진다. 중간 부분은 재즈풍의 변주로 진행되다가, 후반부에는 박자가 빨라지고 점점 고조되면서 화려하게 끝을 맺는다. 이 곡의 주제인 ‘달마중’ 노래의 주선율은 총 8번 등장한다. 8번의 달마중 노래를 모두 찾아가면서 듣는 것도 이 곡을 즐기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편작 박경훈)

공연곡	해설
신년맞이 판굿	판굿은 풍물놀이에서 잽이꾼(연주자)들이 사물을 손에 들거나 몸에 메고 발로 땅을 디며 박차고 솟구쳐 오르며 춤을 추고, 머리에는 상모를 쓰고 하늘을 휘젓고, 손으로는 사물을 울리며 진을 만들어가는 놀이를 말하며 우리민족의 혼을 담은 놀이이며 음악으로 몸과 마음을 내던져 터질 듯 한 몸짓으로 놀이되어 보고 듣는 이들에게 흥과 멋, 그리고 신명과 감동을 주어 금새 한마음 한 뜻이 되게 하는 우리민족의 창조적 놀이 문화이다. 춤추며 뒤를 따르게 되고 그 행렬이 점점 늘어나서 마을 축제로 이어지게 하는 대동(마을전체) 놀이이다.
Frontier	한국과 일본의 피아니스트이자 프로듀서 겸 작곡가인 양방언의 곡으로 태평소, 장구 등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양방언이 한데 어우러지는 역동적이고 경쾌한 분위기의 곡으로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의 공식음악으로 사용되었다. ‘프론티어(Frontier)’는 국경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동서양의 국경을 넘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번 연주에서 국악기 위주로 편곡된 ‘프론티어(Frontier)’를 만날 수 있다.
남도아리랑	한국예술종합학교 백대웅교수가 한,중,일 전통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해 작곡된 대표적인 창작국악관현악곡이다. 우리나라 남도지방의 대표적 민요인 진도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을 주 테마로 하여 작곡되었으며 진도아리랑의 남도 육자배기 선율과 밀양아리랑의 메나리가락 그리고 종간의 활기찬 타악 연주가 돋보여 절로 우리음악의 멋과 흥에 젖게 한다.
세계민요기행	세계의 여러 나라에는 그 나라만의 민요가 전해진다. 각 민족의 삶의 모습이 녹아있는 민요가 국악기로 편곡되어 연주된다. Greensleeves(영국), Waltzing Matilda(호주), 모리화(중국), 아름다운 베르네(스위스), Pokarekare Ana(뉴질랜드), Oh! Susanna(미국), 라쿠카라차(멕시코), 아리랑(한국) 등 세계의 유명한 민요들을 모아 연주하는 흥겹고도 친숙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신모듬	작곡가 박범훈의 곡으로 ‘신모듬’이란 곡명은 무속음악에서 따온 말로 ‘신명을 모았다’라는 뜻이다. 전체적으로 농악의 장단을 사용하고 있고 사물놀이와 국악 관현악과의 협주곡 형식으로 우리나라 풍물놀이에서 느낄 수 있는 흥겨움 보다 큰 규모의 관현악으로 감상할 수 있다. 3개의 거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째거리는 풍장, 둘째거리는 기원, 셋째거리는 놀이이다.

○ 출연진

출연진	소개
인천국악관현악단	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강사지원사업 국악분야에 소속되어 있는 인천지역 출신 및 인천거주 젊은 국악도들과 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회원 및 임직원들이 모여 설립하였다. 2011년 1월부터 국악협회가 있는 인천국악회관 대연습실을 이용하여 주1회이상 관현악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였으며, 2012년부터 전체 오디션을 거쳐 실력 있는 단원들로 재구성하여 현재까지 매주 각각의 악기 파트연습과 더불어,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연습을 병행하여 현재 국악계에서 연주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연주하고 있다. 현재 악장 고보경을 비롯한 40여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예술공연단 ‘타투’	우리 전통문화의 신명과 아름다움으로 전 세계의 문화경쟁에서 승리하자는 뜻을 모은 젊은 타악 연주자들로 구성된 팀으로 2007년 12월에 창단하였다. 전통연희, 사물놀이, 국악실내악, 타악퍼포먼스 등 다양한 레파토리로 전통예술의 대중화,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유병진 (지휘)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작곡전공 졸업 단국대학교 음악대학원 지휘전공 졸업

출연진	소개
	<p>단국대학교 음악대학원 지휘전공 박사과정 수료</p> <p>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p> <p>전 세종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역임</p> <p>현 경기청소년국악단 상임지휘자</p> <p>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주임연구원</p> <p>단국대, 재능대 출강</p>

■ 관람안내

- 관 람 료 | 무료
- 신 청 | 인천아트플랫폼 홈페이지 사전접수 (선착순)
- 홈페이지 | www.inartplatform.kr
- 문 의 | 032-760-1015

■ 유의사항

- 온라인 사전예약 후 발송된 확인문자로 티켓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문자 확인이 불가능할 시 입장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관람을 위해 트라이볼 내 음식물은 지정 장소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 주 소

트라이볼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0

TEL.032-760-1000

www.inartplatform.kr

twitter @tri_bowl

■ 주최·주관 | (재)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볼